

년 중반에 완성·가동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99년까지는 매출액이 15~20억프랑에 이를 것" 이라게 롱프랑의 전망이다.

롱프랑이 두번째의 대형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옥수수용 제초제인 이속사프루톨(RP201772)인데 97년에 미국시장에 내놓을 예정으로 있다. 이것은 알라클로르등의 약제대체를 겨냥한 것으로 발아 후 소량으로 투여할 수 있는 제초제이며 남미의 사탕수수 농기쪽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다. 롱프랑측에 따르면 1ha당 불과 75~100g을 사용하면 충분하여 2001년에는 12~15억프랑의 매상을 기대하고 있다.

롱프랑은 99년을 목표로 대규모 공장의 건설계획을 검토중이며 올 9월까지 공장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네카-조만간 신설비 가동

영국의 제네카는 핵심제품의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살균제 아족시스 트로빈(상품명 아미스타)의 생산설비를 갖추는데 4천7백30만달러를 투자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투자액 2천6백70만달러규모의 공장가동 외에 또다른 지역에 5백34만달러를 투자하여 제조공장을 가동시킬 예정으로 있다. 아미스타의 개발명은 IC15504였다. 또한 관련이 될 중간원료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제네카는 이외에도 3천만 내지 4천만 파운드의 자금으로 글라이포세이트산을 영국에서, 그라목손은 중국에서 합작투자로 각각 제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라목손은 97년에 생산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네카의 중점 목표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소비급증을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및 남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돌리는데 있다. 동유럽도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시장변화가 완만하다고 보고 있다.

바스프-신물질 살균제에 기대

바스프는 겨울작물인 밀·보리·라이보리의 흰가루병 방제약제로 개발된 신제품 '브리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브리오'의 성분은 펜 프로피몰포와 새로운 활성제인 크레속삼-메칠이다. 크레속삼-메칠은 천연살균성분의 합성물질이다. 바스프는 이 신농약을 브라질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해 바스프의 한 관계자는 "브라질에서는 계 획단계부터 곧바로 시행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다. 9개월도 안걸려 유럽수준의 제조기술과 환경보전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웠다"고 말한다. 이 살균제는 95년 9월부터 생산되고 있다.

바이엘-환경배려형에 중점

바이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환경을 배려한 혁신적 제품, 그중에서도 바이엘이 세계 제1의 위치에 있는 살충제 분야이다. 반면 바이

엘의 살균제는 세계 제2의 위치에 있다.

바이엘은 기존의 제품들을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2000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10년내에 15~20개의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바이엘의 지난해 농약사업부문 매출액은 33억DM으로 94년대비 6% 증가했다. 바이엘로서는 환경에의 적합성을 개선하고 투하량을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신제품개발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성사시킬 수 있는 최대 추진력으로서 "가우초, 애드마이어, 칸피더등 상표의 제품에 사용된 이마다클로프리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살충제로의 길을 가고 있어 이의 연간 매출액이 이미 5억DM을 넘고 있다"는 것이 바이엘측의 얘기다. 또한 살충제인 '아스텍'도 환경면의 유리함이 힘겨워 부상할 전망이다. 95년에 옥수수용으로 승인된 '아스텍'은 투하량이 기존제품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투하량이 적고 더욱이 독성이 낮으며 거기다 작물의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세가지 장점은 바이엘의 '3-포인트-프로그램'의 목표"라고 바이엘 관계자는 강조한다.

시비도 제품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개선하고 생산비용과 제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단일 이성체를 축으로한 메톨라클로르와 메탈락실의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원래 레이스믹합물로 공급되어 왔었다.

새로 생산되는 이들 제품의 투하율은 메톨라클로르는 38%, 메탈락실은 50%수준이면서도 충분한 방제효과를 나타낸다. 때문에 약제자체는 물론 환경에의 영향도 줄일 수 있으며 제조하는데 드는 원료와 시약의 양도 줄일 수 있다. 메탈락실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상품명은 리도 말-골드'가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사용승인이 나왔다. 또한 메톨라클로르의 이성체는 97년초에 EPA의 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약제 allergy-해소 PR도 중요

바스프는 앞으로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쇠고기와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것은 곡물중산입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의 과제는 국민에게 식량생산에 대한 타개책이 가능한가하는 점을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확실히 환경주의자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사고방식이 듣기에는 좋지만 그 방법으로는 현재 세계의 인구를 유지하는 일이 가능치 않으며, 무엇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식량을 공급할 수 없다"

이런 견해는 업계쪽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작물보호약제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협은 이런 사실에 역행한 PR과 법령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자에 대응하여 상황을 역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입장은 개방이지만 무엇보다도 이해시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다.